

노부모가 지각한 성인자녀에 대한 감정과 교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lderly Parent's Perception of Emotion and Interchange with their Adult Children*

원광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홍 달아기

Dept. of Home Management, Wonkwang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Hong, Dal-Ah-Gi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조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ntended to fully understan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elderly parent's satisfaction in the living to adult children.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elderly parent's over 55 years old whom live in Iksan. The sample was composed of 146 case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statistic program.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 1) The effective indicator was related economic parts ; earns, the cost of living, educational background, sex, affection.
- 2) The affection related between elderly parent's and adult children was found to be high and the conflict between them was found to be low.
- 3) The economic interchange between elderly 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was influenced by religion, cohabitance with adult children. The effective indicator was conflict and dependent emotions. The serviced interchange was influenced by spouse, sex, earns.

I. 서론

과거로부터 가족은 부모와 자녀의 밀접한 관계가 핵심을 이루어왔다. 우리 나라의 전통사회에서는 적

어도 노부모·성인자녀·손자녀의 3대가 한 가족구조 아래서 생활하여 왔으며, 성인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역할은 절대적인 것이었고 이는 경로효친

*이 논문은 97년도 원광대학교 교비지원에 의해 연구됨.

사상에 근거한 하나의 미덕으로 간주되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의 노인은 비교적 변화가 적고 안정된 상태의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무런 걱정과 준비 없이 노년을 맞았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도시화 현상과 함께 가족형태가 대가족체제에서 핵가족화로 변화되고, 과학과 의학 기술의 발달로 노인의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노인문제가 대두되었다. 가족의 형태는 산업사회에 이동과 적응이 용이한 핵가족형태로 바뀌게 되었으며 가치관의 변화는 세대간의 갈등심화와 노인부양의식의 약화를 초래해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이 어려워짐에 따라 새로운 가족부양체계가 요청되고 있다.

핵가족의 증가와 함께 노인단독가구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노인 스스로의 자유스런 생활을 선호하기 때문에 선택한 점도 있으나 자녀의 직장에 따른 도시로의 이동과도 관계가 깊다. 성인자녀가 직장생활 등으로 바쁘게 생활하여 성인자녀와의 접촉빈도가 적어짐으로써 노인은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고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끼게 되었고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교육의 부족으로 노인들은 젊은이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또한 빠른 정년퇴직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로 경제적 빈곤감에 처하게 되는 노인이 많아졌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노인이 갖는 문제에 대해 사회와 가정에서 뚜렷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즉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세금우대, 부양수당 등 국가의 부양 지원도 미약하며, 현대사회에서 성인자녀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자신의 가족구성원들이 생활하기도 벅차 노부모를 부양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자녀와 노부모간의 정서적 교류는 노부모의 노후 생활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하나 실제로는 자녀와의 접촉빈도가 낮아 서로간에 외로움을 나누거나 여러 문제를 의논하는 가족자원 활용이 부족한 실정이다.

가족복지분야에서 노인부양은 가족과 사회의 공조적인 체제로 복지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노인의

복지는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노부모의 정서적 안정과 만족감은 가족간의 관계에서 충족되어야 한다. 이는 여러연구(박재간, 1982; 윤진, 1982; 서병숙, 1986; 최정혜, 1992; 전길량, 1993; 김태현, 1994)에서도 밝히고 있다. 국내연구도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보다 부양문제나 가족의 형태에 따른 연구나 노인의 복지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들도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본질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가까움의 정도, 애정, 내재화된 규범 등 주관적인 유대관계의 질적 측면의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노부모가 만족하는 성인자녀와의 관계를 위해서는 노부모가 실생활에서 성인자녀에게 어떠한 감정을 갖고 있으며, 교류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노부모의 진정한 생각을 파악하여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노부모와 성인자녀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적절히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부양체계성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노인이 지각하는 성인자녀에 대한 감정

노인이 지각하는 성인자녀에 대한 감정은 노부모가 성인자녀와의 관계에서 느끼고 기대하는 정서를 말한다. 세대간의 발달관계에 있어서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에 의해 양과 종류가 다른 이해관계가 생기는데 이로 인해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에 다양한 감정이 야기된다(Bengtson & Cutler, 1976). 즉 노부모와 자녀간의 호혜성이 결여되면 애정과 접촉에 영향을 주며, 부모와 자녀간의 역할전환과 부양기대감에 따라서는 갈등이 표출되고, 이러한 갈등의 주요원인은 의존감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과 성인자녀간에 가장 빈번하고 특징적인 감정을 애정·갈등·의존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애정

애정은 정서적인 느낌으로서 동일시, 가치합일,

친밀성 등이 필요요건이 되고 부모, 자녀사이의 심리 및 감정을 만족시키며 지속적으로 접촉하도록 하며 두사람 사이의 특별한 애정과 기대되는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섭섭함의 감정을 발생시킨다(고정자, 1989).

또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서로 비슷한 가치를 가졌을 때 관계의 질이 높아지고 가족구성원들이 서로를 좋아하게(장선주, 1989) 되는데 비슷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은 서로의 기대가 일치됨을 의미한다. 이는 정서적인 상호의존성, 상호부조, 가치와 목표에 대한 유사성 등과 같은 차원으로 설명되는 결속이나 유대를 강화시켜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최정혜, 1992).

노인의 생활만족은 세가지 상황에서 느끼는데 첫째가 생활에서 느끼는 만족이고 둘째는 애정의 균형이 이루어지므로 느낄 수 있는 만족이며 셋째는 정신, 신체 상관의 징후 때문에 가지게 되는 만족이다(Kalish, 1975). 이와 같이 애정은 노인의 생활만족과도 관계가 깊다. 단 여자노인은 남자노인보다 자녀와의 애정적 유대가 강하며 특히 어머니와 딸의 유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Adams, 1968) 성별에 따라 애정에 대한 지각이 다른 것을 나타낸다.

2) 갈등

갈등은 둘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존재하여 해결에 곤란을 느끼는 상태(유영주, 1991)로 둘 이상의 세력이 바라는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려 할 때 생기는 긴장이나 대립현상(송경아, 1987)으로 인간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국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또한 갈등은 부모, 자녀간의 상호작용속에서 발생하는데 심리적 욕구나 가치관, 성격이나 의견, 가족내 자원의 사용과 분배 등 관계 제 측면에서 대립내지 충돌한다고 지각하는 심리적 불균형, 부조화 상태를 뜻한다(장선주, 1989).

갈등이 가치와 태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때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갈등은 세대차이라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다(신일진, 1991). 노년세대들은 일반적으로 보수적이어서 전통적인 가치관을 존중

하며, 완고하고 개성이 뚜렷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행위를 절대시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고, 젊은 세대는 대체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의식을 지니고 있어서 세대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박재간, 1985).

이와 같이 노인과 성인자녀간에는 세대차라는 커다란 요인과 부양자와 피부양자라는 대립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다른 관계보다 많은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의존감

인간은 태어나서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의존을 경험하는데 노년기에는 나이가 증가할수록 의존적이 되어간다. 따라서 노인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며, 노년기의 의존은 생활 주위상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인생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노인의 의존성을 Blenkner(1965)는 경제적 의존성, 신체적 의존성, 정신능력의 의존성, 사회적 의존성, 심리적 의존성으로 구분하였다(장선주, 1989 재인용). 우리나라 노인은 78%가 노후생계를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노인의 당면과제 중 경제적 요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조사연구소, 1995). 노인의 경제적 의존은 노년기의 변화과정에서 경제적 자활능력의 상실에 따라 친자관계에서 부양자가 피부양자로 역할전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노부모는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 상실됨에 따라 자녀에 대해 의존감을 갖게 된다. 자녀의 취직이나 결혼에 의해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해가면서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상실된 데에 대한 심리적 공백을 갖게 되고 일에서의 퇴직으로 인한 소외감과 배우자와의 사별로 모든 역할상실(채옥희, 1994)을 경험하게 되어 정서적·사회적인 의존이 불가피해진다.

특히 노인이 되어 갈수록 자녀·가족에게 물질적인 도움보다는 심리적으로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며(윤진, 1982) 이러한 상황에서는 물리적이고, 객관적인 유대감도 중요하지만 주관적인 애정이나 친밀감 등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최정아, 1991).

또 노인은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감퇴와 기능저하로 개인생활 뿐 아니라 사회생활을 위해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신체적 의존성이 심해질수록 사회적 역할수행은 점점 어렵게 되어 결국은 모든 사회적 역할수행을 중단해야 되는 상태에 이른다(장인협·최성재, 1988).

이상을 종합해 보면 경제적, 사회심리적, 신체적인 능력저하와 감퇴에 따라 의존감을 많이 지각할수록 세대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2.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교류

인간은 살면서 다양한 관계들과 상호작용을 주고받는다.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교류는 노부모와 성인자녀가 실생활에서 주고 받는 물질적 상호교류를 말하며 이를 노부모는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교환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활동은 이익을 추구하고, 보상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노력이 강화되어 인간간의 상호작용이 반복된다(최신태, 1985)고 한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경제적 교류, 정서적 교류, 서비스적 교류를 포함하며 경제적 교류는 생활비, 용돈, 선물교환 등 재정적인 원조이며 정서적 교류는 부모자녀간의 접촉, 감정적 상호교환으로 인한 신뢰감, 공평감, 애정, 존경심 등이다. 서비스적 교류는 식사준비, 설거지, 청소, 손자녀를 보기 등 일상생활상의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의미한다(Lopata, 1978; 최정혜, 1982; 윤진, 1986; 서병숙, 1988; 장선주, 1989).

III. 조사방법 및 절차

1. 조사도구의 구성

1) 조사대상의 속성

조사대상자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배경변인과 실제생활과 관련된 몇 가지 상황을 포함시켰다.

배경변인은 성, 연령, 자녀수, 학력, 월수입, 종교, 직업유무, 모임참여, 배우자 유무 등 포함시켰으며,

노인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생활비 부담, 용돈 정도, 자녀와의 동거여부, 자녀와의 동거이유 등을 포함시켰다.

2) 노부모가 지각한 성인자녀와의 감정과 교류

노부모가 지각한 성인자녀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신적인 면으로는 노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감정과 물질적인 면으로는 경제적·서비스적인 교류를 측정하였다. 이의 측정을 위한 조사도구는 서병숙(1988)과 장선주(1989), 최정혜(1992)의 연구를 참고하여 수정 보완하였으며 29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노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감정은 애정, 갈등, 의존감으로 분류하여 각 5문항씩 15문항이며, 경제적 교류와 서비스적 교류는 각 7문항씩으로 이루어졌다.

각 분야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감정

① 애정

노인과 동거하는 자녀와의 애정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선행연구(서병숙, 1988; 장선주, 1989; 최정혜, 1992)를 참고로 밀접성, 신뢰, 가치합일 등의 5문항의 합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는 1점에서 5점까지 분포되며 각 문항의 합의 점수가 높을수록 애정의 정도가 높다.

내적 일관성의 정도를 나타내 주는 Cronbach's α 값은 0.70이다.

② 갈등

노인이 지각한 자녀와의 갈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생활방식, 행동, 세력, 자원의 사용과 분배, 성격, 불만족 등의 6문항의 합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의 합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갈등의 정도가 높다.

내적 일관성의 정도를 나타내 주는 Cronbach's α 값은 0.88이다.

③ 의존감

노인이 지각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의존감은 경제적 의존성, 사회심리적 의존성, 신체적 의존성을 묻는 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합의 점

수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의존감의 정도가 높다.

내적 일관성의 정도를 나타내 주는 Cronbach's α 값은 0.50이다.

(2) 노부모의 성인자녀와의 교류

① 경제적 교류

노인과 자녀간의 금전, 물건 등 물질적인 도움교환의 7개 문항의 합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에서 「자주 도움을 주고받는다」까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경제적 교류가 많다.

내적 일관성의 정도를 나타내 주는 Cronbach's α 값은 0.77이다.

② 서비스적 교류

노인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느정도 자녀의 도움을 받는가 혹은 자녀들을 도와주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식사준비, 설거지, 집보기 등 7개 문항의 합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서비스적 교류가 많다.

내적 일관성의 정도를 나타내 주는 Cronbach's α 값은 0.87이다.

2. 자료 수집방법 및 절차

본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는 1997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30명의 성인자녀를 둔 남녀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개별면접 조사를 하였다.

본 조사는 예비조사결과 신뢰도가 낮고, 부적합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였으며, 총 146부가 최종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3. 자료분석

본 자료분석은 SPSS PC Program에 의해 수행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수에 대한 빈도, 백분율 등의 단순통계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를 위해 문항분석과 내적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구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배경과 교류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t검증, oneway ANOVA를 사용하였고, 사후검증

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사용하였다. 노부모의 성인자녀에 대한 감정과 교류와의 관계를 보기 위해 상관관계와 회귀분석을 하였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표집대상자의 수가 적고 전복에 한정되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생활비 부담조사에서 누가 부담하는가만을 조사하여 동·별거여부에 따른 의미를 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세세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는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자녀를 둔 55세 이상의 남녀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146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노인이 31.5%, 여자노인이 68.5%로 여자 노인이 남자 노인보다 2배가 많았다.

연령은 60세에서 69세의 노인이 43.8%로 가장 많았고 55세에서 59세는 30.1%로 중간을 이루며 70세 이상의 노인이 26.0%로 가장 적었다.

총 자녀수는 한명에서 두명이 38.4%, 세명에서 네명이 34.2%로 한명에서 한두명의 자녀를 둔 노인과 거의 같은 비율이며, 다섯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노인은 27.4%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학력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를 졸업한 노인이 52.1%로 가장 많았고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노인이 32.9%였다. 학교에 다닌 적이 있는 노인이 총 85%로 학교에 다닌 적이 없었던 노인 15.1%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노인 가정의 총 수입은 150만원 이상이 43.8%, 90에서 140만원 사이가 30.1%, 90만원 미만인 20.5%순서로 나타났다.

생활비 부담은 노인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54.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동거자녀가 부담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46)

변인	구분	N(%)	변인	구분	N(%)
성별	남	46(31.5)	용돈	10만원 이하	38(26.7)
	여	100(68.5)		11-29만원	62(43.7)
	계	146(100)		30만원 이상	42(29.6)
연령	55-59세	44(30.1)	직업	유	70(47.9)
	60-69세	64(43.8)		무	76(52.1)
	70세 이상	38(26.0)		계	146(100)
	계	146(100)			
자녀수	1-2명	56(38.4)	모임참여	노인정	28(19.4)
	3-4명	50(34.2)		종교단체	50(35.2)
	5명 이상	40(27.4)		취미, 봉사단체	30(20.5)
	계	146(100)		참여않함	34(23.9)
학력	학교에 다닌적이 없다.	22(15.1)	배우자	유	92(63.8)
	초등학교	76(52)		무	52(36.2)
	중, 고등학교	48(32.9)		계	144(100)
	대졸이상	0			
	계	146(100)			
수입(월평균)	90만원 미만	30(79.0)	자녀와의 동거여부	함께 산다.	74(50.7)
	90-149만원	4(10.5)		다르 산다.	72(49.3)
	150만원 이상	4(10.5)		계	146(100)
	계	38(100)			
생활비 부담	본인	80(56.4)	자녀와의 동거이유	당연하기 때문	52(63.4)
	동거자녀	52(36.6)		자녀가 원해서	30(36.6)
	기타	10(7.0)		계	82(100)
	계	142(100)			
종교	불교	50(34.2)			
	기독교	56(38.4)			
	기타	40(27.4)			
	계	146(100)			

한다가 36.6%, 기타 응답으로 자녀마다 매달 조금씩 부담해 준다가 68%로 나타났다.

노인들의 한달 용돈 정도를 살펴보면, 10만원 이하가 26.7%, 11만원에서 29만원이 43.7%, 30만원 이상이 29.6%로 11만원에서 29만원사이가 가장 많았다.

현재 직업이 있는 노인과 없는 노인은 각각 52.1%, 47.9%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종교를 살펴보면, 불교와 기독교가 비슷하게 나타났다으나 불교보다 기독교가 약간 더 많은 38.4%이며, 불교는 34.2%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는 노인에 비해서 종교가 없는 노인도 27.4%나 차지하고 있었다.

모임참여는 종교단체에 참여하는 정도가 35.2%로 가장 많았고, 노인정이나 취미·봉사단체에 참여하는 정도가 각각 19.2%, 20.5%로 비슷했으며, 모임단

체에 참여하지 않는 노인도 23.3%나 되었다.

노년기에 이르면 배우자의 유무가 노인들의 심리적 상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 조사에서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63.8%, 배우자가 없는 노인이 36.2%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없는 노인보다 2.1배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교적 초노기 노인의 표집이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과 자녀와 별거하여 따로 사는 노인의 비율은 각각 50.7%, 49.3%로 거의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배우자 유무와 자녀와의 동·별거에서 나타난 결과는 표집 대상이 비교적 초노기(30.1%)와 중노기(43.8%)의 노인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자녀와 동거하는 주된 이유로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하다가 35.6%, 자녀가 원하기 때문인가 20.5%로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노인이 약간 더 많았다.

IV. 결과 및 해석

1. 배경변인에 따른 노부모가 지각한 성인자녀에 대한 감정

배경변인에 따른 노부모가 지각한 성인자녀에 대한 감정을 하위영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1) 애정

노부모가 지각한 성인자녀에 대한 애정은 배경변인 중 수입과 생활비 부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가정의 총수입이 90만원 미만인 가정보다 150만원 이상인 경우의 애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생활비 부담에서도 본인이 부담하는 것보다 동거자녀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자녀와 더 애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자원이 감소하는 것은 갈등을 일으켜서(Quin, 1983) 애정이 낮아지는 것을 말한다. 이는 노인에게 있어서의 경제적인 문제가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 자녀에 대한 애정정도도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는 증진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즉 노부모

에게 있어서 성인자녀의 중요성은 경제적인 측면을 해결해 주는 수단적인 존재로 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어느 한쪽이 의존하는 비호혜적인 관계에서는 의존적인 입장에 있는 쪽이 애정이 낮게 나타난다(Thomson & Walker, 1984)는 연구도 있어서 노부모가 자녀의 도움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 애정에 대한 지각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2) 갈등

노부모가 지각한 성인자녀에 대한 갈등은 성별, 학력, 수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서는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의 경우가 자녀와의 갈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노인은 주로 가정내에서 성인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여자노인을 가정내가 아닌 가정외의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학력에 있어서는 학교에 다닌 적이 없는 노인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노인보다 자녀와의 갈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길량·임선영의 연구(1998)에서도 여자노인이 상대적으로 남자노인보다 부부갈등 각 하위영역별로 갈등을 높게 지각하였으며 특히 노인의 교육수준이 낮고 자녀와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부부관계의 갈등을 높게 지각하고 결혼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학력이 갈등을 지각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노인에게 있어서 성별, 학력 등은 생의 만족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수입의 정도가 낮을 수록 성인자녀와의 갈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에서 노인들이 성인자녀에 대한 지각에서 경제적인 면이 유의하게 나타난 연구결과를 뒷받침 해주는 결과이다. 또한 생활수준이 '하'이고, 자녀에게서 생활비를 얻는 노인이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전길량, 임선영, 1998)도 경제적인 요인과 정서와의 관계를 설명해 준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노인이 성인자녀와의 관계에서 지각하는 갈등은 남자노인보다는 여성노인이, 학

〈표 2〉 노인이 지각한 성인자녀에 대한 감정

변인	N	감정						
		애정		갈등		의존감		
		mean	DMR	mean	DMR	mean	DMR	
성별	남	46	3.79		2.43		2.85	
	녀	98	3.55		2.86		3.22	
	T 값	144	1.39		-2.15*		-2.1	
연령	55 - 59세	42	3.53		2.66		2.72	b
	60 - 69세	52	3.53		3.07		3.25	a
	70세 이상	24	3.98		2.58		3.72	a
	F 값	118	2.76		2.19		1.55***	
자녀수	1 - 2명	52	3.58		2.85		3.09	
	3 - 4명	40	3.65		2.79		3.17	
	5명 이상	26	3.66		2.83		3.28	
	F 값	118	0.93		0.03		0.29	
학력	학교에 다닌적이 없다.	16	3.28		3.33	a	3.38	a
	초등학교 졸업	58	3.66		2.79	ab	3.35	a
	중·고등학교 졸업	44	3.70		2.45	b	2.83	a
	F 값	118	1.56		4.85**		4.31	
수입 (월평균)	90만원 미만	12	3.13	c	3.38	a	3.13	
	90 - 149 만원	40	3.54	b	3.13	ab	3.25	
	150만원 이상	64	3.79	a	2.43	b	3.14	
	F 값	116	3.71		13.55***		0.17	
생활비 부담	본인	62	3.42	c	2.90		2.72	b
	동거자녀	52	3.88	a	2.69		3.65	a
	기타	2	3.80	b	2.60		3.60	a
	F 값	116	4.67**		0.50		21.16***	
종교	불교	38	3.71		2.59		3.41	
	기독교	48	3.67		3.01		3.09	
	없음(無)	32	3.72		2.83		2.96	
	F 값	118	0.92		1.39		1.99	
용돈	10만원 이하	26	3.49		2.77		3.21	ab
	11 - 29 만원	54	3.71		2.90		3.40	b
	30만원 이상	36	3.62		2.72		2.79	a
	F 값	116	0.56		0.26		4.54**	
직업	유	70	3.67		2.83		3.43	
	무	74	3.56		2.62		2.78	
	T 값	144	0.69		1.12		4.61***	
모임참여	노인정	22	3.70		2.89		3.62	a
	종교단체	40	3.59		3.04		3.28	ab
	취미·봉사단체	30	3.87		2.36		2.75	b
	참여하지 않는다.	24	3.37		2.93		3.05	ab
	F 값	116	1.66		2.26		4.03**	
배우자 유무	유	92	3.63		2.26		2.96	
	무	50	3.61		2.89		3.30	
	T 값	142	0.08		-1.20		-2.43**	
자녀와의 동거여부	함께산다.	74	3.72		2.73		3.38	
	따로산다.	70	3.45		2.72		2.80	
	T 값	144	1.66		0.05		4.02***	
자녀와의 동거이유	함께사는 것이 당연하다.	52	3.84		2.64		3.37	
	자녀가 원해서	30	3.64		2.83		3.36	
	T 값	82	1.00		-0.75		0.94	

DMR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5 **p<.01 ***p<.001

력이 낮을수록, 수입이 낮을 수록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3) 의존감

노부모가 지각한 성인자녀와의 관계에서 의존감은 여러 배경변인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P<.001$)과 생활비 부담($P<.001$), 직업($P<.001$), 학력($P<.01$), 용돈($P<.01$), 모임참여($P<.01$), 배우자 유무($P<.01$), 자녀와의 동거($P<.01$), 성별($P<.05$)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비를 본인이 벌 때 보다 동거자녀나 기타로부터 해결할 때, 직업이 없을 때, 학력이 낮을 때, 용돈의 수준이 낮을 때 의존감이 높았다. 노인에게 용돈의 수준은 자녀에 대한 의존감과 영향력 있는 변수로써 노년기의 사기나 자립과 상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모임참여에서는 취미, 봉사단체의 모임에 참여하는 노인이 의존감이 낮았으며 노인정에만 나가는 노인은 의존감이 높았다. 이는 노인정에서 평범한 소일거리나 무의미한 시간보내기 보다는 취미,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는 노인은 노인 스스로 자기계발을 추구하는 노인으로서 노년의 삶에 의미와 만족을 찾으며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장선주의 연구(1989)와는 일치한다. 한편으로는 노인정이 장소제공기능만 하는 것도 문제점이며, 성별에서도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들이 의존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노인의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다.

2. 배경변인에 따른 노부모가 지각한 성인자녀와의 교류

1) 경제적 교류

배경변인에 따른 노부모가 지각한 성인자녀와의 교류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노부모가 지각한 성인자녀와의 경제적 교류는 배경변인 중 종교($P<.05$)와 자녀와의 동거($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장선주, 1989; 서병숙, 1988)와 일치된 결과이며 노인들에게 종교

는 헌금과 사고 등 사회적인 활동을 요구하므로 성인자녀와의 경제적 교류가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또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은 동거하지 않는 노인보다 성인자녀와 더욱 빈번한 경제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함께 살면 서로 간에 생활상이 노출되기 때문에 상호간의 생활개입이 많아져 경제적 교류가 많아지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2) 서비스적 교류

배경변인 중 성별($P<.01$), 배우자 유무($P<.01$), 수입($P<.0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자노인보다는 여자노인이 성인자녀와의 서비스적 교류가 높게 나타났으며, 수입이 높을 때,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자녀와의 서비스적 교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자노인이 가정내에서 성인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수입이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서로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짐으로써 상호서비스적 교류가 높으리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배우자유무에 따른 성인자녀와의 서비스적 교류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배우자를 노인의 가족생활에서 정서적 지지자로 지각을 함으로써 서로의 가족내 지위를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인해 성인자녀와의 교류가 많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또는 생활교류도에 있어서 노년기로 갈수록 배우자의 존재는 가족내의 위치를 높여주는 것이 되므로 늙을수록 부부해로가 중요하다는 연구(서병숙, 1988)도 있다.

3. 노인이 지각한 감정과 교류간의 상관관계

노인이 지각한 성인자녀에 대한 감정과 교류간의 상관관계는 <표 4>와 같다.

갈등과 경제적 교류간에 경제적 교류와 서비스적 교류, 의존감과 갈등, 경제적 교류와 의존감간에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며, 애정과 갈등은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표 3〉 노인이 지각한 성인자녀와의 교류

변인	N	교류				
		경제적 교류		서비스적 교류		
		mean	DMR	mean	DMR	
성별	남	46	3.68		2.48	
	녀	94	3.67		3.41	
	T 값	140	0.03		-3.45**	
연령	55 - 59세	42	3.54		3.16	
	60 - 69세	60	3.64		3.14	
	70세 이상	30	3.96		2.94	
	F 값	132	0.07		0.19	
자녀수	1 - 2명	52	3.52		3.27	
	3 - 4명	48	3.67		2.79	
	5명 이상	32	3.96		3.30	
	F 값	132	0.82		1.49	
학력	학교에 다닌적이 없다.	16	3.63		2.90	
	초등학교 졸업	70	3.76		3.14	
	중·고등학교 졸업	46	3.58		3.12	
	F 값	132	0.21		0.15	
수입 (월평균)	90만원 미만	22	3.42		2.36	b
	90 - 149 만원	40	3.42		3.35	a
	150만원 이상	64	3.94		3.26	ab
	F 값	126	1.86		3.42*	
생활비 부담	본인	72	3.46		2.98	
	동거자녀	52	3.87		3.22	
	기타	6	4.33		2.93	
	F 값	130	1.77		0.35	
종교	불교	44	4.08		3.23	
	기독교	50	3.50		3.11	
	없음(無)	38	3.42		2.95	
	F 값	132	3.01*		0.32	
용돈	10만원 이하	34	3.98		3.55	
	11 - 29 만원	58	3.72		2.90	
	30만원 이상	38	3.37		3.00	
	F 값	130	1.52		1.99	
직업	유	68	3.75		3.27	
	무	72	3.60		2.93	
	T 값	140	1.24		0.16	
모임참여	노인정	24	4.11		3.52	
	종교단체	44	3.48		3.21	
	취미·봉사단체	30	3.51		3.03	
	참여하지 않는다.	32	3.79		2.68	
	F 값	130	1.08		1.44	
배우자 유무	유	86	3.74		3.36	
	무	52	3.53		2.58	
	T 값	138	0.82		2.91**	
자녀와의 동거여부	함께산다.	72	3.94		3.31	
	따로산다.	68	3.39		2.86	
	T 값	140	2.29*		1.64	
자녀와의 동거이유	함께사는 것이 당연하다.	50	3.60		3.37	
	자녀가 원해서	30	4.27		3.36	
	T 값	80	-2.22*		0.02	

DMR=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5 **P<.01 ***p<.001

〈표 4〉 노부모가 지각한 감정과 교류간의 상관관계

구분	의존감	갈등	애정	서비스적 교류	경제적 교류
의존감	-				
갈등	0.218**	-			
애정	0.163	-0.645***	-		
서비스적 교류	0.096	-0.048	0.010	-	
경제적 교류	0.236**	0.315**	0.171	0.340**	-

P<.01 *P<.001

즉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경제적 교류가 활발할수록 노부모가 갈등을 많이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경제적 교류가 활발할수록 성인자녀와의 서비스적 교류도 활발함을 보여준다. 이는 노부모가 경제적 도움을 많이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적 도움을 제공해야한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존감이 높을수록 갈등을 높게 지각함을 알 수 있고, 경제적 교류가 높을수록 의존감도 높게 지각하고 있다.

경제력이 약한 노인의 경우는 성인자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적 교류는 활발해야 하고 따라서 의존감도 높게 지각하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 애정이 높을수록 갈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노인이 지각한 성인자녀에 대한 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변인을

노인이 지각한 성인자녀에 대한 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변인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경제적 교류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갈등이며 그 다음은 의존감이다. 갈등과 의존감은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경제적 교류에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들 변인들의 설명력은 25%로 나타났다.

서비스적 교류에서는 모두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비스적 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애정, 갈등, 의존감외의 더 영향력이 있는 다른 변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표 5〉 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변인

	경제적 교류		서비스적 교류	
	B	β	B	β
의존감	0.480	0.302*	-	-
갈등	-0.662	-0.467**	-	-
애정	-0.343	-0.186	-	-
R ²	0.251		-	
F	4.252**		-	

* P<.05 **P<.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노인복지는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노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노인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성인자녀에 대한 감정과 교류를 노부모의 입장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경변인에 따른 노부모가 지각한 성인자녀에 대한 감정변인을 보면 노부모의 애정에 대한 지각은 경제적 변인에 의미있는 결과를 보였다. 수입이 어느 정도인가와 생활비 부담을 누가 하는가에 따라 성인자녀에 대한 애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애정정도로 증진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는 물질적으로 어느 한쪽이 의존하는 비호혜적인 관계에서는 의존적 입장에 있는 쪽이 애정이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Thompson & Walker, 1984)와 일치한다. 또 자신의 자원이 감소하는 것은 갈등의 요인이 된다(Quin, 1983)는 결과도 있어서 생활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에 따른 갈등이 애정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노인에게 경제적인 안정을 갖게 하는 것은 성인자녀와의 정서적 관계를 개선시키고,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변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최정혜(1992)의 연구는 정서적, 가치갈등이 재정적 갈등보다 높게 나타나 노부모-성인자녀간의 문제는 정서적 가치갈등의 문제 비중이 크다고 밝혔는바 본 연구와는 일치되지 않지만 노부모의 복지

는 물질적 도움만으로 부족하며 정서적 지지도 필요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노부모가 지각한 성인자녀에 대한 갈등은 성별, 학력, 수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사회활동량이 적은 여자노인과 학력이 낮은 노인, 수입이 적은 노인들이 성인자녀와의 갈등을 높게 지각하고 있다.

노인에게 있어 사회적 접촉은 많을수록 노인이 높은 생활만족을 느끼며(Adams, 1971), 우울상태에 있는 사람도 가족, 친구, 이웃과 보다 많은 접촉을 통해 고민, 우울 등의 심리사회적 증후를 완화시켰다(Arling, 1987)는 연구결과를 볼 때 주로 가정내에서 생활하는 여자 노인들의 스트레스를 간과해서는 안됨을 알 수 있다. 학력이 낮고 수입이 적은 노인들이 성인자녀와의 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것은 경제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된다.

의존감에 영향을 미친 배경변인은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이 없을 때, 학력이 낮을 때, 용돈수준이 낮을 때, 생활비를 본인이 해결하지 못할 때, 노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의존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노인이 지각하는 성인자녀에 대한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경제적 능력과 관련이 깊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배경변인에 따른 노부모가 지각한 성인자녀와의 교류 중 경제적 교류는 배경변인 중 종교가 있는 경우,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의미있는 결과를 보여, 사회활동을 하면서 자녀와의 접촉이 빈번한 노인이 경제적 교류도 높음을 보여준다.

서비스적 교류는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높게 나타나서 가족과의 일상적인 교류는 여자노인이 빈번하여 남자노인의 가정내에서의 소외를 예상할 수 있다. 또 수입이 높을 때, 배우자가 있을 때 자녀와의 서비스적 교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를 가정내 노인지위를 확고히 해주며, 정서적 지지기반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배우자유무, 수입은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이 지각한 감정과 교류와의 상관관계를 보면 경제적 교류가 활발할수록 서비스적 교류도

활발함을 보여 노부모는 경제적 도움을 많이 받으면 서비스적 도움도 많이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존감이 크면 갈등도 높게 지각하고, 경제적 교류가 높으면 갈등도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애정이 높으면 갈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인자녀와의 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감정변인을 살펴보면 갈등이 경제적 교류에 가장 영향력 있고, 그 다음이 의존감이다. 따라서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경제적 교류는 활발하다고 해도 갈등과 의존감을 수반하기 때문에 각자 서로의 경제력을 갖는 것이 현명하리라고 사료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 노부모가 지각하는 중요변인은 경제관련 변인 즉 수입, 생활비 부담, 용돈과 같은 변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후생활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노인 스스로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둘째, 노부모가 갈등을 지각하는 배경변인은 성별, 학력, 수입으로 나타나 노년기의 생활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노년기 생활교육을 통해 자신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의존감을 높게 지각하는 노인일수록 불리한 배경변인을 갖고 있다. 즉 연령이 높고, 직업이 없고, 학력이 낮고, 용돈수준이 낮다. 따라서 노후를 당연히 자녀에게 의존하겠다는 생각과 자녀의 부양을 의무화하는 사고를 벗어나 자신의 노후문제를 스스로 지각하여 해결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따라서 노인에게 자신감을 갖고 남은 여생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대중화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은 성인자녀와 더불어 살아가므로 성인자녀가 노인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본다.

■ 참고문헌

- 1) 김은주(1994), "노부모의 성인자녀와의 결속과

-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 김태현(1994), 노년학, 교문사.
 - 3) 박재간(1985), “21세기 노인문제와 사적부양기능”, 한국노년학 5.
 - 4) 서병숙(1988), “부부 노후의 책임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6.
 - 5) 서병숙(1988), “노후적응에 관한 연구: 생활만족도 및 가족의 교류도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6) 송경아(1987), “고부간의 갈등 원인 및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7) 신호식·서병숙(1992), “노부모와 성인 자녀간의 결속도가 노부모의 심리적 손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2(2).
 - 8) 송현애(1986), “부양을 중심으로 한 노모-성인자녀관계에 대한 조사연구”, 성균관대학원석사학위논문.
 - 9) 신일진·김태현(1991),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 10) 윤진(1983), “노년기의 심리적 적응”, 핵가족화와 노인복지,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11) 윤진(1991), 성인·노인 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 12) 장인협·최성재(1988),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 13) 장선주(1989),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생활감정 및 교류: 아들 동거노인과 딸동거노인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4) 지연자(1989), “여성노인의 자아개념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대 석사학위논문.
 - 15) 채옥희(1994), 신 가정학 원론, 경춘사.
 - 16) 최신태(1983), “노인부양과 규범의 정립”, 핵가족화와 노인복지,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17) 최재석(1982), 한국가족연구, 일지사.
 - 18) 최정아(1991), “사회적지원망과 노인의 생활만족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 R. L. Kalish(1975), Late Adulthood: Perspective on Human Development; Berkely Calif: Cole Publishing Co.
 - 20) V. L. Bengtson and Cutler, N.E(1976), “Generation and Intergeneration Relationship: Perspective on Age Group and Social Change”, Handbook of Aging and Social Science.
 - 21) Adams, B. N.(1968), Kinship in an Urban Setting, Cicago: Markham Publishing.
 - 22) Tompson, L. & Walker, A. J(1984), Mothers and Daughters: Aid patterns and Attach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May).
 - 23) Quin, W.H.(1983), “Personal and family Adjustment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Feb).